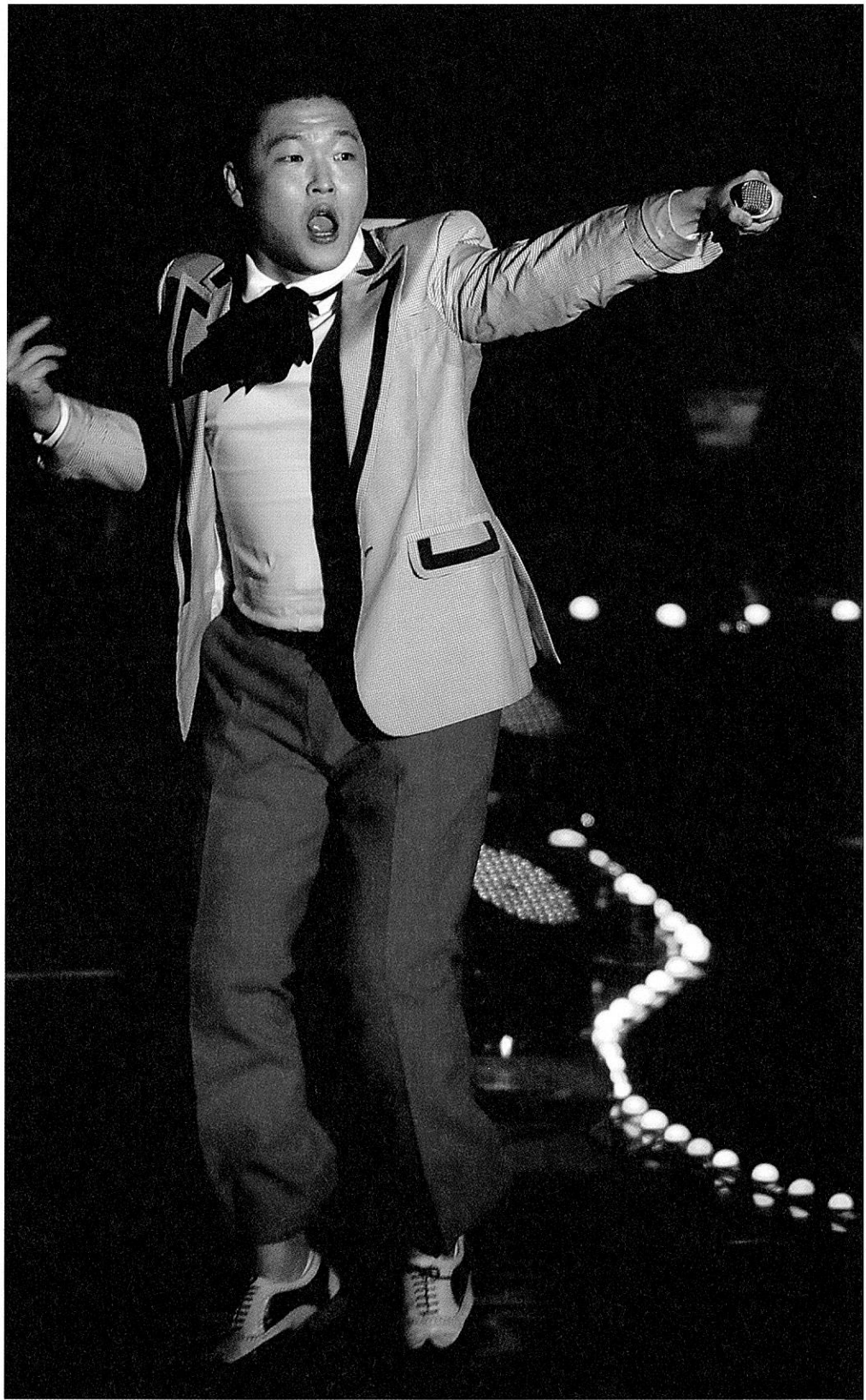


●  
Challenge Zone

Health people

글\_김연수 기자  
사진\_이미화 기자  
아시아경제 DB



## 국제 가수 싸이 갈때까지 가보자

어제의 싸이가 아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은 갓난아기의 울음을 그치게 하고 여든의 할아버지도 춤추게 한다. 슈퍼스타, 월드스타라는 타이틀을 넘어 이제 '국제 가수 싸이'란 명칭이 입에 착 붙는다. 세계를 들썩이게 만드는 싸이의 거침없는 질주는 이제 시작이다.



미국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생방송 토크쇼에 나가 “나는 한국에서 온 싸이라는 가수다”라고 당당하게 소개하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던 싸이는 그야말로 준비된 국제 가수 그 자체였다.

#### 준비된 국제가수, 유튜브 조회수 5억 건 돌파

그야말로 전세계가 ‘싸이 앓이’ 중이다. 팝의 본고장 영국 공식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한데 이어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 차트에서도 1위라는 기염을 토했다. 게다가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 동영상은 현재 날짜 10월 20일 기준으로 조회수 5억 건을 돌파하며 국내 최고 기록을 훌쩍 넘어 유튜브 사상 최고의 자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은 국내 가수는 싸이가 처음이다. 미국 CNN, ABC, NBC, MTV, 영국 BBC 라디오 등 세계 유수 방송국의 전파를 타면서 싸이는 더 이상 대한민국만의 가수가 아니다.

미국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생방송 토크쇼에 나가 “나는 한국에서 온 싸이라는 가수다”라고 당당하게 소개하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던 싸이는 그야말로 준비된 국제 가수 그 자체였다. 한치의 떨림도 없이 라이브로 들려준 ‘강남 스타일’ 노래와 신들린 그의 ‘말춤은 세계인들을 매료시켰다. 거침없는 그의 영어 실력과 녀석 좋게 구사하는 유머 또한 세계적으로 통했다.

이렇게 무리한 스케줄로 귀한 몸이 되신 싸이의 건강 걱

정을 하는 팬들도 부쩍 늘고 있다. 싸이 본인 역시 가수 12년 간 대중에게 건강 걱정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그렇다면 싸이의 보양식은 무엇일까.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집 밥’으로, 그 가운데 꼭 집어 ‘엄마가 끓여 준 온반(양지머리 국물로 만든 이북식 국밥)’이라고 한다.

#### ‘싸이다움’ 잃지 않겠다

무엇보다 싸이가 무대에서 열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팬들의 아낌없는 박수와 성원이 아닐까. 그는 “무대에서 춤과 노래로 거의 탈진 상태에 가까워질 때 참을 수 없는 엔도르핀과 아드레날린이 솟구친다. 팬들의 함성 소리에 피곤한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무대를 즐기게 된다.”며 자신의 노래를 즐기고 사랑해주는 관객들이 그가 노래할 수 있게 이끌어주는 힘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싸이는 “앞으로도 ‘싸이다움’을 잃지 않고 덜 모범적이고, 건강하되 건전하지 않은 음악으로 계속 세계 무대에 열심히 노크하겠다. 좋은 일로 한국 사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싶다.”란 굳은 의지를 밝혔다.